



담양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캠페인 진행

담양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지난 7일 담양군과 경찰서, 교육청,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 관계기관과 함께 담양읍 중심 상가 주변에서 겨울 방학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이번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캠페인은 겨울 방학을 계기로 청소년 유증·흡연 행위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민관합동으로 진행해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펼쳐졌다.

감시단은 캠페인 뿐 아니라 청소년 유해 약물뿐 아니라 폭력에 노출된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서생현 담양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는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 함양에 달려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관과 함께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농협은행 전남본부,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NH농협은행 전남본부(본부장 류종필)는 10일 화순출신 범농협 임직원들과 함께 화순군청에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구북구 화순군수를 비롯해 NH농협은행 류종필 전남본부장, 농협중앙회 정재현 상무, NH농협생명 고성신 부사장 등 총 10명이 참석해 고향사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현장의 온기를 더했다.

구북구 군수는 “고향을 향한 농협 임직원들의 열정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된다”며 “기부금은 우리 군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류종필 본부장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화순군 출신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시작으로 지역사회 연대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광주비엔날레-몰타예술위 '파빌리온 협약'

광주시는 광주비엔날레와 몰타예술위원회가 지난 7일 비엔날레재단에서 지속적인 미술교류와 파빌리온 상설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사진)

이날 협약식에는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인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몰타예술위원회 에나벨 스티발라(Annabelle Stivala) 국제문화교류국장, 로미나 델리아(Romina Delia) 국제화 이사, 에릭 세바스타(Eric Sevsta) 관리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몰타 수교 60주년을 맞아 추진된 것으로, 두 기관은 △제16회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몰타관을 위한 공동기획 및 상호 지원 △동시대 미술콘텐츠 교류 △문화·학술 교류를 위한 기관 간 자원 공유 △공동프로젝트를 위한 홍보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대병원, 윤한덕기념사업회 제6회 추모식

설 연휴기간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근무하다 과로사한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기리는 윤한덕기념사업회(회장 서해현 서광병원장, 이사장 허탁 전남대병원 교수)가 제6주기 추모식을 개최했다. (사진)

지난 9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윤한덕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전남의대·전남의대 동창회·광주응급의료지원단이 주관하는 추모식이 지난 4일 오전 10시 전남의대 화순캠퍼스 의학도서관에서 열렸다.

서해현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가 OECD 평균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다. 의료인의 헌신과 희생으로 유지해왔던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며 “하지만 대한민국 공공의료는 김윤하 교수 같은 의료인들의 수고와 노력, 희생, 헌신 덕분에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윤한덕기념사업회는 고인의 고귀한 정신과 숭고한 희생을 널리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 출판 기념회

현 담양군수의 선거법 상고심 판결에 따라 4월 재선거 여부가 결정되는 담양에서 출마 의사를 내비친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이 쓴 시집 출판 기념회가 열렸다. (사진)

지난 8일 오후 담양문화회관에서 열린 이날 기념회에는 고향인 수북초·중학교 동문과 담양군민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김영록 전남도지사과 이개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신정훈, 정진욱, 전진숙, 박수현, 고민정, 이재정, 윤건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저서에는 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사에서 쓰는 ‘평산에 간 담양평상’ 이야기와 함께 담양지역 12개 읍·면의 대표적 여행지를 중학생 딸이 직접 그린 그림이 함께 담겼다.

이 전 행정관은 “다시 전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정에 풍요가 더해지는 담양을 위해 (이번 시집이) 머리를 함께 맞대는 마중물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오지현 기자



호남대 사랑나눔센터, 연탄나눔 봉사활동

호남대학교 사랑나눔센터 소속 건축학부 봉사 동아리 ‘호비타트’ 회원들이 지난 8일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난방 취약계층에 ‘따뜻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

호비타트 봉사단 학생들은 건축학부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기부금과 2024년 공모전 수상 학생들이 받은 상금의 일부를 모아 연탄 1000장을 구입, 해당 가구에 배달했다.

행사에 참여한 건축학부 박지훈 교수는 “계속된 한파와 폭설로 따뜻한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는 주변의 취약 가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학생들이 연탄 배달봉사에 나서줘 대견하다”며 “매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기특한 건축학부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김선우 영농조합법인 천자농부 대표 취임

김선우(사진) 전·복지TV사장은 10일 영농조합법인 천자농부 대표로 정식 취임했다.

김대성 천자농부회장은 “김선우사장의 다양한 사회경험과 인적네트워크, 농민들을 위한 열정을 높이 평가하고, 천자농부의 설립취지인 참된 마음으로 참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전하는 가교 역할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취임한 김선우 대표는 “평소 존경하는 김대성 회장의 천자농부 설립 이념을 바탕으로 농민과 도시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며 “도시민이 원하는 먹거리를 농민에게 전달하고, 도시민과의 연계를 통해 합



리적인 농산물 판로를 개척하고, 1차 사업으로 진행중인, 통밀밭아새싹빵인 참농부들빵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농조합법인 천자농부는 ‘참농부들빵’을 통해 경북 김천, 영광 농가에서 국내산 통밀을 계약 재배하고, 유기농 및 친환경 재료로 만든 ‘사람을 살리는 건강한빵’ 통밀밭아새싹빵을 생산하고 있다. 인천 동구 금곡동에 제빵공장 및 직영매장을 운영중이다.

김성수 기자

광주교통공사, 상반기 공무직 대체인력풀 신규 모집

광주교통공사(사장 조익문·사진)는 공무직의 휴가 및 병가 등 유고 발생 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인력풀(Pool) 29명을 모집한다.

지난 9일 광주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번 분야별 채용 인원은 역무직 15명, 미화직 10명, 시설·경비직 2명, 정비직 2명이다.

응시자격은 공고일(2025년 2월6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서류전형)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시로 되어있거나 공고일 전일까지 3년 이상 광주시로 주민등록이 돼 있었던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남녀로, 그 외에 자격요건은 없다.

다만, 사회적 약자 고용 지원을 위해 50세 이상의 준고령·고령자와 취업지



원대상자에게는 5~10%의 가점이 주어지며,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비롯한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을 우대한다.

응시원서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공사 본사 4층 총무팀(광주 서구 상무대로760)으로 직접 또는 대리 방문 제출로 접수하고, 서류전형 후 최종합격자는 3월31일에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grtc.co.kr>)에서 확인하거나 공사 총무팀(062-604-8064)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병하 기자

어도어 “NJZ 아닌 뉴진스... 전속계약 법적 유효”

그룹 ‘뉴진스(사진)’ 멤버들이 지금의 활동명을 버리고 ‘엔제이지(NJZ)’로 나섰다고 선언한 가운데, 이들과 전속계약 분쟁 중인 레이블 어도어가 새로운 팀 이름을 인정하지 않고 나섰다.

어도어는 10일 “지난 7일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와 협의되지 않은 그룹명으로 활동할 계획을 밝혀,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해지했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어도어는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 받는 가처분과 함께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어도어는 “언론은 적법한 계약에 기초한 ‘뉴진스(NewJeans)’라는 공식 팀명을 사용해주시기를 부탁한다”면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전속계약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정확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하루 빨리 혼란을 마무리하고 좋은 음악과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진스는 내달 21~23일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리는 ‘컴플렉스 라이브’에 NJZ라는 이름으로 출연해 신곡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 기간이 2029년까지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 기일이 3월7일 열린다.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첫 기일은 4월3일이다.

뉴시스